

제 1 교시

수능 국어 히파

출수형

[ 음 운 ]

1.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16학년도 수능 A형 11번, 정답률 70%]

- ㉠ 옳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싸이다]
- ㉢ 솟도 → [숯또], 옷고름 → [은꼬름]
- ㉣ 닳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 읽지 → [익찌], 훑거나 → [훑거나]

- ① ㉠,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 ‘값다 → [갑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 ‘겉모양 → [건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 ‘값고 → [간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 임권의T의 TIP 〉

4번 선지를 보고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에 대해 망설였다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다. 2020학년도 6평에도 비슷한 선지가 나왔다. 아예 선지 공부를 해두자.

이거 외워야 한다. 평가원에 나온 선지다.

조음 방법이 같다 = 유음화, 비음화가 일어난다.

조음 위치가 같다 =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발음 기관의 위치가 같다 (두 입술 / 혀끝 / 센입천장 / 여린입천장 / 목청소리)

2.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6월 14번, 정답률 70%]

〈 보 기 〉

• 탐구과제

겹받침을 가진 용언을 발음할 때 어떤 음운 변동이 나타나야 표준 발음에 맞는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자음군 단순화, 된소리되기, 비음화, 유음화,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으로 비표준 발음과 표준 발음을 설명해 보자.

• 탐구자료

	비표준 발음	표준 발음
㉠ 끊는	[글튼]	[궁는]
㉡ 째네	[째네]	[째레]
㉢ 끊기고	[끈기고]	[끈키고]
㉣ 똥지	[똥찌]	[똥치]

• 탐구내용

㉠의 비표준 발음과 ㉡의 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 ㉠ )가 나타난다. 이에 비해, ㉠의 표준 발음과 ㉡의 비표준 발음에는 자음군 단순화 후 ( ㉡ )가 나타난다. ㉢과 ㉣의 표준 발음은 ( ㉢ )만 일어난 발음이다.

- |       | ㉠     | ㉡      | ㉢ |
|-------|-------|--------|---|
| ① 유음화 | 비음화   | 거센소리되기 |   |
| ② 유음화 | 비음화   | 된소리되기  |   |
| ③ 비음화 | 유음화   | 거센소리되기 |   |
| ④ 비음화 | 유음화   | 된소리되기  |   |
| ⑤ 비음화 | 된소리되기 | 거센소리되기 |   |

3.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9월 13년, 정답률 70%]

— < 보 기 > —

선생님 :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부정확한 발음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우선 아래 표에서 부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발음을 확인해 보세요.

예	찰흙이	안팎을	넋이	끝을	숲에
부정확한 발음	[찰호기]	[안파굴]	[너기]	[끄출]	[수베]
	↓	↓	↓	↓	↓
정확한 발음	[찰홀기]	[안파굴]	[너씨]	[끄틀]	[수베]

다 봤나요? 그럼 정확한 발음을 참고하여,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해 볼까요?

학생 :

선생님 :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정확한 발음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세요.

- ① '찰흙이'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하는데, [찰호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② '안팎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안파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③ '넋이'는 연음을 하고 된소리되기를 적용해야 하는데, [너기]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④ '끝을'은 연음을 하고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하는데, [끄출]은 구개음화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⑤ '숲에'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하는데, [수베]는 거센소리되기를 적용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 < 임권의T의 TIP > —

3번 선지를 고른 학생들이 제법 많았다. 아마 2번 선지와 3번 선지가 순서가 바뀌었다면 정답률이 더 낮아졌을 것이다.

평가원은 '음절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를 구분하는 문제를 자주 낸다. 분명히 말해주었는데 '음절 끝소리 규칙'은 교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법 문제로 이동해서 46번 문제를 풀어보기 바란다. 나름대로 관련이 있는 문제다. 또한 쌍받침은 발음될 때 '교체'되고, 접받침은 발음될 때 두 음운 중 하나가 '탈락'된다. 이거 모르면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틀린다.

4.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2014학년도 9월 A형 11년, 정답률 69%]

— < 보 기 > —

음운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 교체,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 탈락,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 첨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합쳐지는 ㉣ 축약이 그것이다.

- ① '가랑잎[가랑님]'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값지다[갑찌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술하다[수타다]'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열차[그행널차]'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서른여덟[서른너덜]'에서는 ㉠과 ㉢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5.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학년도 6월 A형 11년, 정답률 69%]

— < 보 기 > —

선생님 :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들+고 → [뜰꼬]	㉡ 놓+고 → [노꼬]
㉢ 훑+네 → [훌레]	㉣ 뽕+느라 → [뽕느라]
㉤ 넓+더라 → [널떠라]	

학생 :

- ①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기' '디'의 영향을 받아 '기'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기'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ㅎ'이 '기'의 영향을 받아 'ㅎ'과 거센소리라는 점이 같은 '크'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③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니' '티'의 영향을 받아 '티'와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비'이 '디'의 영향을 받아 '디'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로'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⑤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비'이 '디'의 영향을 받아 '디'과 동일한 소리인 '디'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6.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학년도 수능 A형 11번, 정답률 66%]

- ㉠ 빗→[빈], 앞→[압], 안팎→[안팍]
- ㉡ 약밥→[약뺨], 잡다→[잡따]
- ㉢ 놓지→[노치], 말형→[마텃]

- ① ㉠과 ㉡은 음절 중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 임권의T의 TIP >

5번 선지를 보고 교환을 언어보자. 'ㅂ'이라는 음운이 추가 돼서 'ㅃ'이 되는 게 아니다. 애초에 쌍자음은 하나의 음운이다.  
**차라리 자음 첨가는 'ㄴ첨가'만 떠올려라.**

[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ㄹ'로 끝나는 명사 '밭', '술', '이튿'이 ㉠ '밭가락', ㉡ '소나무', ㉢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ㄹ'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소나무'에서는 '밭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ㄹ'이 탈락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ㄹ'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ㄹ'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ㄹ'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밭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밭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ㅅ'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밭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밭 엄지 가락(엄지밭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ㅅ'은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따라 중세 국어 '밭 가락'은 현대 국어 '밭가락[밭가락]'이 되었다.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술'에 '나무'의 옛말인 '나모'가 결합하고 'ㄹ'이 탈락한 합성어 '소나모'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ㄹ'이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술'의 'ㄹ'이 탈락하였다.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튿'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ㅅ'이 결합한 '이튿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ㅅ'은 '이튿 밤', '이튿 길'에서의 'ㅅ'과 같은 것이다. 중세 국어에

서 '이튿 날'은 '이튿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ㄹ'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ㅅ'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ㅅ'과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끝소리가 'ㄹ'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ㄹ'이 변환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뭇 사람'에서 온 '뭇사람'에서처럼 'ㅅ'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7. 윗글을 참고할 때, ㉠~㉣과 같이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예를 <보기>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그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12번, 정답률 66%]

< 보 기 >

무술(물+술)	쌀가루(쌀+가루)
난알(난+알)	술방울(술+방울)
선달(선+달)	푸나무(풀+나무)

- ① 술방울, 무술, 난알                      ② 술방울, 푸나무, 선달
- ③ 푸나무, 무술, 선달                      ④ 쌀가루, 푸나무, 난알
- ⑤ 쌀가루, 술방울, 선달

8.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2015학년도 수능 A형 11번, 정답률 64%]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 기+어 → [기여]
- ㉡ 살피+어 → [살피]
- ㉢ 배우+어 → [배워]
- ㉣ 나서+어 → [나서]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9.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6월 13번, 정답률 64%]

1) [국어사] 56번과 중복 지문

〈 보기 〉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집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흡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영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없지[언찌]'와 '뭉고[뭉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넓네[넰네]'와 '밝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10.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학년도 수능 11번, 정답률 63%]

〈 보기 〉

**선생님:**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ㅈ
중모음	ㅔ	ㅕ	ㅑ	ㅊ
저모음	ㅐ		ㅓ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② 2개의 중모음
- ③ 3개의 평순 모음                      ④ 3개의 고모음
- ⑤ 4개의 후설 모음

11.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학년도 6월 14번, 정답률 55%]

〈 보기 〉

- ㉠ 풀잎[풀립]      ㉡ 읊네[읍네]      ㉢ 벼훑이[벼훑치]

- ① ㉠, ㉡에서는 음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군.
- ② ㉠, ㉢에서는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③ ㉠에서 첨가된 음운과 ㉡에서 탈락된 음운은 서로 다르군.
- ④ ㉠, ㉢에서는 음운 개수가 달라지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 ⑤ ㉠은 'ㄹ'로 인해, ㉢은 모음 'ㅣ'로 인해 동화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군.

1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7학년도 6월 13번, 정답률 44%]

〈 보기 〉

- ㉠ 맑+네→[망네]
- ㉡ 낮+일→[난닐]
- ㉢ 꽃+말→[꼰말]
- ㉣ 글+교→[글꼬]

- ① ㉠: '값+도→[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입+나→[입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물+약→[물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팔+죽→[판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읽+지→[일치]'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 임련의T의 TIP 〉

학생들이 3번 선지를 주로 골라서 틀렸던 문제다.

평가원이 음운 변동 현상은 교체 / 탈락 / 첨가 / 축약이다. 즉, 동화는 '교체'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원은 첨가된 '니'가 'ㄹ'로 동화된 것은 교체로 본다는 것이다.

[ 단 어 ]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 하는데,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의어와 하의어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이를테면 '구기'는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 하의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의어가 된다. 그런데 '구기'의 하의어에는 '축구' 외에 '야구', '농구' 등이 더 있다. 이때 상의어인 '구기'에 대해 하의어 '축구', '야구', '농구' 등은 같은 계층에 있어 이들을 상의어 '구기'의 공하의어라 하며, 이들 공하의어 사이에는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곧 어떤 구기가 '축구'이면서 동시에 '야구'나 '농구'일 수는 없다.

한편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일례로 어떤 새가 '장끼'이면 그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를 이어받으므로 '꿩'을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가 '꿩'이라 해서 그것이 꼭 '장끼'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의어는 하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이를 [ ]로 표현하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면,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 자질들을 가지면서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가져, 결국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보다 의미 자질 개수가 많다. 곧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듯이 '구기'의 공하의어가 여러 개인 것과 달리, '꿩'의 공하의어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장끼'와 '까투리' 둘뿐이다. '구기'의 공하의어인 '축구',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장끼', '까투리'는 '꿩'의 공하의어로서 비양립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장끼'와 '까투리'의 경우, '장끼'가 아닌 것은 곧 '까투리'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 그 공하의어들은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6월 11번, 정답률 70%]

악기(樂器)[-끼] [명]

[음악]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눈다.

타-악기(打樂器)[타:-끼] [명]

[음악]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팀파니, 실로폰, 북이나 심벌즈 따위이다.

- ①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겠군.
- ②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이므로 [두드림]을 의미 자질 중 하나로 갖겠군.
- ③ '구기'는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악기'는 '북'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겠군.
- ④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구기'의 하의어이지만, '구기'의 공하의어는 아니겠군.
- ⑤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이므로 모두 '악기'의 상의어 '구기'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겠군.

14.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8학년도 6월 12번, 정답률 66%]

< 보 기 >

㉠ 여름에 고향을 출발한 그가 마침내 ㉡ 북극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나는 다급해졌다. 지구의 양극 중 ㉢ 남극에는 내가 먼저 가야 했다. 남극 대륙은 ㉣ 계절이 여름이어도 내 고향의 ㉤ 겨울만큼 바람이 차다. 남극 대륙에서 나를 위로해 준 것은 썰매를 끄는 ㉦ 개들과 귀여운 몸짓을 하는 ㉧ 펭귄들,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 갈매기들뿐이었다.

- ①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린 말은 망아지, 어린 소는 송아지, 어린 개는 강아지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사람들이 친숙하게 기르는 가축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가 모두 '-아지'로 끝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돼지도 흔한 가축인데,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는 따로 없다. '가축과 그 새끼'를 나타내는 고유어 어휘 체계에서 '어린 돼지'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돼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린 돼지를 가리키는 고유어 단어가 없을 뿐인데, 이렇게 한 언어의 어휘 체계 내에서 개념은 존재하지만 실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어휘적 빈자리'라고 한다.

어휘적 빈자리는 계속 존재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휘적 빈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방식은 단어가 아닌 구를 만들어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어떤 언어에는 '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에 해당하는 각각의 단어는 존재하지만, 외사촌을 지시하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그 언어에서 외사촌을 지시할 때에는 '외삼촌의 자식'이라고 말한다고 한다. 현대 국어에서 어린 돼지를 가리킬 때 '아기 돼지, 새끼 돼지' 등으로 말하는 것도 이러한 방식에 해당된다.

두 번째 방식은 한자어나 외래어를 이용하여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무지개의 색채를 나타내는 현대 국어의 어휘 체계는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인데 이 중 '빨강, 노랑, 파랑'은 고유어이지만 '빨강과 노랑의 중간색', '푸른 빛과 같이 푸른 빛을 약간 띤 녹색' 등을 나타내는 고유어는 없기 때문에 한자어 '주황(朱黃)'과 '초록(草綠)' 등이 쓰이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은 상의어로 하의어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이다. '누이'는 원래 손위와 손아래를 모두 가리키는 단어인데, 손위를 의미하는 '누나'라는 단어는 따로 있으나 '손아래'만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어서 상의어인 '누이'가 그대로 빈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후 의미 구별을 위해 손아래를 의미하는 '누이동생'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누이'는 상의어로도 쓰이고, 하의어로도 쓰인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6월 11년, 정답률 70%]

< 보 기 >

지금의 '돼지'를 의미하는 말이 예전에는 '돌'이었고, '돌'에 '-아지'가 붙어 '돌의 새끼'를 의미하는 '도야지'가 쓰였다. 그런데 현대 국어의 표준어에서는 '돌'이 사라지고, '돌'의 자리를 '도야지'의 형태가 바뀐 '돼지'가 차지하게 되었다.

- ① '예전의 '도야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지금은 사라졌다.
- ② '예전의 '돌'은 '도야지'의 하의어로, 의미가 더 한정적이다.
- ③ 지금의 '돼지'와 '예전의 '도야지'가 나타내는 개념은 다르다.
- ④ 지금의 '어린돼지'에 해당하는 어휘적 빈자리는 '예전'부터 있었다.
- ⑤ '예전의 '도야지'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지금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가 사용된다.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의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를 중심 의미라고 하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주변 의미라고 한다.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사용 빈도가 높다. 그러면 다의어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첫째,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나 '한 살을 먹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언과만 함께 쓰여 중심 의미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언의 수가 적다.

둘째, 주변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손'의 중심 의미가 확장되어 '손이 부족하다', '손에 땀' 처럼 각각 '노동력', '권한이나 범위'로 쓰이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 다의어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

**줄임**

- ① 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에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 예) 줄로 묶었다.
- ② 길이나 죽 벌이거나 늘어 있는 것. 예) 아이들이 줄을 섰다.
- ③ 사회생활에서의 관계나 인연. 예) 내 친구는 그쪽 사람들과 줄이 닿는다.

예를 들어 '줄'의 중심 의미는 위의 ①인데 길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이 유사하여 ②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연결이라는 속성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③의 뜻도 지니게 되었다. 이때 ②와 ③은 '줄'의 주변 의미이다.

그런데 ① 다의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앞'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이 중심 의미인데 '앞 세대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일'에서는 각각 '이미 지나간 시간'과 '장차 올 시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시간의 축에서 과거나 미래 중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에 따른 차이로서 이들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은 유지된다.

16. 윗글을 참고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학년도 수능 11년, 정답률 68%]

- ①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 '천체의 일부'라는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
- ② '앉다'의 의미 중 '착석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요직에 앉다'처럼 '직위나 자리를 차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더 높겠군.
- ③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이 두 의미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관계로 볼 수 없겠군.
- ④ '팽이를 돌리다'는 어법에 맞는데 '침이 생기다'라는 의미의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사용된 것이겠군.
- ⑤ 사람의 감각 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를 올렸다'에서의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눈'의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더 구체적이겠군.

< 임권의T의 TIP >

4번 선지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팽이를 돌리다'의 '돌다'와 '침이 생기다'의 '돌다'는 애초에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이다. 물론 사전을 찾아보면 통한다고는 되어있을 꺼리가 좀 있으나.. 수능 시험장 안에서 네이버 사전을 검색할 수는 없을 터라 여기서 그걸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다.  
 잘 떠올려보면 .. 침이 올라올 때, 은근히 돈다는 느낌이 있다. 그냥 그정도로 다의어라고 우겨야 한다. 수능 문제라 참.. 안타깝다. 우리는 이런 문제까지도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다.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차라리 모호하다고 표시하고 더 확실한 선지를 찾자.

17.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의 예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0학년도 수능 12번, 정답률 57%]

< 보 기 >

영희 : 자꾸 말해 미안한데 모뎀 발표 자료 좀 줄래?  
 민수 : 너 빗쟁이 같다. 나한테 자료 맡겨 놓은 거 같네.  
 영희 : 이틀 뒤에 발표 사전 모임이라고 급방 문자 메시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 근데 빗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민수 : 아니, 꼭 빌려 준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료 여기 있어. 가현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자. 아까 출발했다니까 급방 올 거야.  
 영희 : 그래. 발표 끝난 뒤에 다 같이 밥 먹자.

- ① 빗쟁이                      ② 빗쟁이, 급방                      ③ 뒤, 돈
- ④ 뒤, 급방, 돈                ⑤ 빗쟁이, 뒤, 급방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한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형태, 기능, 의미'가있다. '형태'는 단어가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않느냐에 관한 것이고 '기능'은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된다. '의미'는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어 부류가 가지는 추상적인 의미를 말한다.  
 이러한 기준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적용하여 ㉠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말, ㉤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 등으로 개별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에는 분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대표적인데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는 의미상 매우 밀접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가령 '햇살이 밝다'에서의 '밝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에서의 '밝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 양상을 내세우기도 한다.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선어말 어미 '-는-',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청유형 종결어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등과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

다만, '있다'의 경우는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한 장소에 머뭇'의 의미인 '있다'는 동사로 분류되는데, 동사 '있다'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있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 준다.

18.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학년도 9월 11번, 정답률 67%]

옛날 사진을 보니 즐거운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 ① '옛날, 사진, 기억'은 ㉠에 해당하고 명사이다.
- ② '보니, 떠올랐다'는 ㉡에 해당하고 동사이다.
- ③ '하나'는 ㉢에 해당하고 수사이다.
- ④ '을, 가'는 ㉣에 해당하고 조사이다.
- ⑤ '즐거운'은 ㉤에 해당하고 관형사이다.

19.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4학년도 6월 B형 13번, 정답률 65%]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생님께) "<u>아니오</u>, 모르겠습니다."</li> <li>• (친구에게) "<u>아니</u>, 몰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주인공이 <u>아니오</u>."</li> </ul>
의문점	'아니오'의 '오'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옛사람들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보어층 취하는 서술어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뭘 할까? • 어서오, 빨리오. ㉢ 단어, 어휘 어미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오'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국어의 단어들은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어떤 사람고(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 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 까지 지속되고 있다.

20.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수능 11번, 정답률 63%]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2) [국어사] 54번과 중복 지문

2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6월 15번, 정답률 59%]

— < 보 기 —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날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혔다.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3)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3) [문장] 33번과 중복 지문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22.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9월 11번, 정답률 56%]

— < 보 기 —

**학 생 :**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나들이웃    ㉡ 눈웃음    ㉢ 드높이다  
 ㉣ 집집이    ㉤ 놀이터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2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생 1 :**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 :**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학생 2 :**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선생님 :**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논밭,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넌돌, 노림수, 섞어찌개'

와 같은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3: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 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선생님: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답니다.

학생 4: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강'이라는 말은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시인'은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23. <보기>의 ㄱ~ㄴ 중 윗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18학년도 9월 11번, 정답률 41%]

< 보 기 >

- ㄱ. '선생님'을 줄여서 '쌤'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ㄴ.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 ㄷ. '사범'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 ㄹ. '점잖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점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ㅁ.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24. <학습 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수능 14번, 정답률 39%]

< 학습 활동 >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의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자료]

- ㉠ 하늘에 뜬 태양                      ㉡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
- ㉢ 늘 푸르던 하늘                      ㉣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 ㉤ 내가 읽는 소설                      ㉥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 ㉦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

[표] 관형사형 어미 체계

	동사	형용사
현재	-는	㉠
과거	㉢ -던	㉣
미래	-(으)ㄹ	-(으)ㄹ

- ① ㉠의 '뜬'에 쓰인 어미 '-(으)ㄹ'은 ㉠에 해당한다.
- ② ㉡의 '부르던'과 ㉢의 '푸르던'에 쓰인 어미 '-던'은 ㉣에 해당한다.
- ③ ㉡의 '남은'과 ㉤의 '찬'에 쓰인 어미 '-(으)ㄹ'은 ㉣에 해당한다.
- ④ ㉤의 '읽는'에 쓰인 어미 '-는'은 ㉣에 해당한다.
- ⑤ ㉦의 '빠른'에 쓰인 어미 '-(으)ㄹ'은 ㉣에 해당한다.

< 임권의T의 TIP >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문제는 단골 손님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어간에 -는을 붙여보는 거다. 받침 'ㄴ'만 넣는 게 아니다. 어간에 -는을 붙여서 자연스럽게 되면 동사다. 그냥 외워라. 청유형 어미 쓰고 그런거 필자는 실용성 없다고 본다.

25.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표제어 ㉠와 예문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수능 15번, 정답률 36%]

< 보 기 >

- ㉠ 약속 날짜를 너무 받게 잡았다.
- ㉡ 서로 받게 앉아 더위를 참기 어려웠다.
- ㉢ 시간이 더 필요한데 제출 기한을 너무 바투 잡았다.
- ㉣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투 다가가 두 손을 움켜쥐었다.

㉠

1 두 대상이나 물체의 사이가 썩 가깝게.

¶  ㉡

2 시간이나 길이가 아주 짧게.

⋮

발다형

1 시간이나 공간이 다붙어 몹시 가깝다.

¶  ㉢

2 길이가 매우 짧다.

¶ 새로 산 바지가 발아 발목이 다 보인다.

3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심하거나 먹는 양이 적다.

¶ 우리 아들은 입이 너무 발아서 큰일이야.

⋮

㉠

1 발계문

2 발계문

3 발계문

4 바투문

5 바투문

㉡

㉠

㉡

㉢

㉣

㉤

㉢

㉠

㉡

㉢

㉣

㉤

< 임권의T의 TIP >

일단 납득을 시켜주겠다.

용언을 나는 (활)용언이라고 쓴다. 그게 어휘의 뜻을 더 살리는 셈이라 그렇다. 용언 = 동사 / 형용사 = 어간+어미 라는 사실은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거다.

아니 잠깐. 그러고보니 어미는 '변하는 것' 이니 동사와 형용사에만 해당되는 거다. 그런데 '게'는 부사형 전성어미이다.

그래서 어미가 붙으면 무조건 형용사라 .. 사실상 '발게'는 '게'가 붙었기에 부사일 리가 없다. 그래서 1,2,3번 선지가 날아가는 거다.

이해가 안 가면 맘편하게 외워라. '게'는 부사형 전성어미라서, '게'가 붙었다면 무조건 품사는 형용사, 문장성분은 부사어다.

'게'는 주의해야 하는 친구다. 다음 밑줄의 품사는 다음과 같다.

높이가 높다 -> 명사

높게 날자 -> 형용사

높이 날자 -> 부사

우선 조사가 붙은 '높이'는 명사다. 또한 '게'는 부사형 전성어미뿐이다. '높게'는 형용사인거다. 마지막의 '이'는 부사화 접사로 쓰여서 부사이다.

26. <보기>의 ㉠과 ㉡을 모두 충족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9월 14번, 정답률 34%]

< 보 기 >

'붙잡다'의 어간 '붙잡-'은 어근 '붙-'과 어근 '잡-'으로 나뉘고, '잡히다'의 어간 '잡히-'는 어근 '잡-'과 접사 '-히-'로 나뉜다. 이렇듯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 하는데,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는 말을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는 말을 파생어라 한다.

그런데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때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면 합성어이고 어근과 접사로 분석되면 파생어이다. 예컨대 '밀어붙이다'는 직접 구성 요소가 먼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되므로 합성어이다.

- ① 밤새 거센 비바람이 내리쳤다.
- ②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 ③ 차바퀴가 진흙 바닥에서 헛돌았다.
- ④ 거리에는 매일 많은 사람이 오간다.
- ⑤ 그들은 끊임없이 것밭혀도 굴하지 않았다.

[ 문 장 ]

27.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점]

[2015학년도 수능 A형 13번, 정답률 69%]

-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28.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8학년도 9월 15번, 정답률 68%]

< 보 기 >

- ㉠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 ㉡ 그가 집에 갔다.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 ㉢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 ㉣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엔 진학한다고 한다.
- ㉤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군.
-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③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르-'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④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 ⑤ ㉤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29.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9학년도 6월 15년, 정답률 68%]

〈 보 기 〉

선어말 어미 '-더-'는 시간 표현, 주어의 인칭, 용언의 품사, 문장 종결 표현 등과 다양하게 관련을 맺는다.

예컨대 '아까 달력을 보니 내일이 언니 생일이더라.'와 같이 ㉠ 새삼스럽거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비록 미래의 일이라도 그것을 안 시점이 과거이면 '-더-'가 쓰일 수 있다. 또한 '-더-'가 쓰인 문장에는 특정 인칭의 주어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 본인만이 직접 느껴 알 수 있는 감정이나 감각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평서문에는 1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 이 경우, 의문문에는 2인칭 주어만이 '-더-'와 함께 쓰인다. 단, ㉣ 이때도 수사 의문문에는 '-더-'와 함께 1인칭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 한편, '꿈에서 내가 하늘을 날더라.'처럼 ㉤ 꿈속의 일이나 무의식중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화자가 자신의 행동이나 상태를 타인이 관찰 하듯이 진술할 경우 '-더-'가 1인칭 주어와 쓰일 수 있다.

- ① ㉠: 아까 수첩을 보니 다음 주에 약속이 있더라.
- ② ㉡: 나는 그의 합격이 놀랍더라.
- ③ ㉢: 영수야, 넌 내가 그리 말했는데도 안 믿더냐?
- ④ ㉣: 기어이 우승한 그날, 우리 어찌 아니 기쁘더냐?
- ⑤ ㉤: 내가 어제 마신 약은 생각보다 안 쓰더라.

30.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2014학년도 6월 A형 13년, 정답률 66%]

〈 보 기 〉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 습 자 료

	A: 주동문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접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3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3점]

[2015학년도 6월 A형 13번, 정답률 66%]

— < 보 기 —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 ①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 ③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햇살이 고드름을 천천히 녹였다.
- ⑤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아기 곱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 < 임권의T의 TIP —

피동과 사동이 헷갈리면, -계하다로 어미를 바꿔봐라.  
 말 되면 사동이고 안 되면 피동이다.  
 이거 완전 만능이다.

32.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4학년도 6월 A/B형 13번, 정답률 65%]

— < 보 기 —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이제 오는구나.  
 동생: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무슨 일인데?  
 누나: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 < 임권의T의 TIP —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와 같은 맥락으로, 평가원은 높임법을 어렵게 낼 때 항상 주어를 생략시킨다. 높임법 문제를 풀 때 꼭 생략된 주어를 찾자.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

4) [문장] 22번과 중복 지문

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33.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9월 12년, 정답률 64%]

< 보 기 >

- ㉠ 지회는 목소리가 곱다.
-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 ㉢ 동수가 미에에게 선물을 주었다.
-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① ㉠은 '지회는'과 '목소리가 곱다'로 분석되겠군.
- ② ㉡은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겠군.
- ③ ㉢은 '동수가'와 '미에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겠군.
- ④ ㉣은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밝혀졌다'로 분석되겠군.
- 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명언이다'로 분석되겠군.

3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4학년도 수능 A형 13년, 정답률 60%]

< 보 기 >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본다.

- ㉠ 색깔이 회기가 눈과 같다.
-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다.
-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
-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르다.

- ①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35. <보기>의 ㉠~㉥에 쓰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9월 13년, 정답률 60%]

< 보 기 >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 선어말 어미와 ㉢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 ② ㉡에는 ㉡는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 ③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 ④ ㉣에는 ㉡는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로 쓰였다.
- ⑤ ㉤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36.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2019학년도 9월 15번, 정답률 60%]

< 보 기 >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②	㉡	명사절
③	㉢	명사절
④	㉣	관형절
⑤	㉤	관형절

37.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기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20학년도 6월 15번, 정답률 60%]

< 보 기 >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지요? 또한 '쓰다'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 보자.

갈다<sup>1</sup> ㉠【…을 …으로】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깎다 ㉠【…을】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묻다<sup>1</sup> ㉠【…에】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묻다<sup>2</sup> ㉠【…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쓸다<sup>2</sup> ㉠【…을】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피동문	사동문
㉠	㉡

- ① ㉠: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 ② ㉠: 용돈이 이달에 만 원이나 깎였다.  
 ㉡: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 ③ ㉠: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  
 ㉡: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 ④ ㉠: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 ⑤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38. <보기>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2021학년도 6월 14번, 정답률 59%]

— < 보 기 > —

주기적으로 운동하기가 ㉠ **건강의 첫걸음**이다. 그것을 꾸준하게 ㉡ **실천하기** ㉢ **원한다면** 제대로 ㉣ **된** 계획 세우기가 ㉤ **선행되어야 한다**.

- ①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주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③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부사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보어 기능을 하고 있다.
- ⑤ ㉤이 서술어인 문장에서 명사절이 관형어 기능을 하고 있다.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6월 14번, 정답률 57%]

— < 보 기 > —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40.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8학년도 6월 14번, 정답률 32%]

— < 보 기 > —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 어문 규범 ]

41.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2016학년도 9월 B형 11번, 정답률 64%]

— < 보 기 —

- ㉠ 받침 'ㄷ, ㅌ'이 조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말이[바치]
- ㉡ 받침 'ㄷ, ㅌ(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미달이[미다지]
- ㉢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묻히다[무치다]

- ① '같이 건다'의 '같이'는 ㉠에 따라 '티'을 [치]으로 바꿔 [가치]로 발음해야겠군.
- ② '술이나 냄비를 준비하다'의 '술이나'는 ㉠에 따라 '티'을 [치]으로 바꿔 [소치나]로 발음해야겠군.
- ③ '그것은 팔이다'의 '팔이다'는 ㉡에 따라 '티'을 [치]으로 바꿔 [파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④ '자전거에 받히다'의 '받히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바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⑤ '우표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부치다]로 발음해야겠군.

42.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2015학년도 6월 A/B형 14번, 정답률 63%]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살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답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쓸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답아가다

```

    graph TD
      A[㉠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답아가다] --> B{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
      B -- 예 --> C[㉠]
      B -- 아니요 --> D{"-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D -- 예 --> E[㉡]
      D -- 아니요 --> F[㉢]
  
```

	㉠	㉡	㉢
①	살아가다	살아가다 받아 가다	답아 가다 또는 답아가다
②	살아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답아 가다
③	살아가다	받아가다	답아 가다
④	살아 가다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답아가다
⑤	살아 가다	받아가다	답아 가다 또는 답아가다

— < 임권의T의 TIP > —

솔직히 문제 좀 병맛이다. 이미 ㉠,㉡,㉢에 뭐 들어가는 지 다 알려줬는데, 빈칸은 또 비워놨다. 뭐 일단 '살아가다'가 표제어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다. 다만 표제어니까 띄어쓰기 할 필요 없다는 것만 풀어내면 된다. 이후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분리하는 훈련이다.

43.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2021학년도 6월 15번, 정답률 55%]

< 보 기 >

학생: 선생님, 자기 소개서를 써 봤는데, 띄어쓰기가 맞는지 가르쳐 주시겠어요? 헛갈리는 부분을 표시해 왔어요.

양로원에 가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에 ㉠ 봉사 보다는 게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작은 일을 ㉡ 도울 뿐이었는데 ㉢ 너 밖에 없다면 행복해하시는 어르신 들의 말씀을 들을 ㉣ 때 만큼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선생님: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써야 하지만, 조사는 예외적으로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학생: 아, 그럼 [A] 은/는 앞말에 붙여 써야 하는군요.

- ① ㉠의 '보다', ㉢의 '밖에'
- ② ㉡의 '뿐', ㉢의 '밖에'
- ③ ㉡의 '뿐', ㉣의 '만큼'
- ④ ㉠의 '보다', ㉡의 '뿐', ㉣의 '만큼'
- ⑤ ㉠의 '보다', ㉢의 '밖에', ㉣의 '만큼'

44.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2015학년도 수능 B형 13번, 정답률 54%]

- ① 엿저녁에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 ② 그가 발의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 ③ 적잖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 ④ 동생은 누나가 직접 만든 깍뚜기를 먹어 보았다.
- ⑤ 저기 넓적하게 생긴 바위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 임권의T의 TIP >

이제 이런 문제 안 나온다. 틀려도 상심해하지 말자. 이런 문제 좋아하면 9급 공무원 시험 치는 거 추천한다.

45. <보기>의 [1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학년도 6월 13번, 정답률 48%]

< 보 기 >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튀간, 횡수'는 예외이다.

•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 ㉠ 단어 분류상 '합성 명사'일 것.
- ㉡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고유어+고유어 • 고유어+한자어 • 한자어+고유어
- ㉢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 ㉣ 두 말이 결합하며 발생하는 음운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 앞말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남.
  -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ㄴ' 소리가 덧남.
  - 뒷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뀐.

㉠~㉣ 각각의 쌍은 위 조건 ㉠~㉣ 중 [1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옷 표기 여부가 갈린 예이다.

	사이시옷이 없는 단어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
㉠	도매가격[도매가격]	도맷값[도매값]
㉡	전세방[전세빵]	아랫방[아래빵]
㉢	버섯국[버설국]	조갯국[조개국]
㉣	인사말[인사말]	쫄댓말[쫄덴말]
㉤	나무껍질[나무껍질]	나뭇가지[나무까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46.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학년도 수능 B형 11번, 정답률 33%]

< 보 기 >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 자료**

읽다[익따], 읊는[옴:는], 닦지[닥찌], 읊기[옴끼], 밝는[밤:는]

- ① '읽다[익따]'는 ㉠를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읊는[옴:는]'은 ㉠를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닦지[닥찌]'는 ㉠를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읊기[옴끼]'는 ㉠를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밝는[밤:는]'은 ㉠를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임권의T의 TIP >

어려운거 사실이다. 우선 앞서 '음운'에서 **겹받침은 발음될 때 탈락, 쌍받침은 교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 방식으로 풀었다면 1~3번 선지는 무난히 풀어냈을 것이다. 그러나 4번 선지와 5번 선지의 차이를 못 느꼈다면, ㉠를 간과한 거다. 5번 선지는 '㉠를 지키기 위해'가 틀린 선지이다. 우선 ㉠를 지키기 위해 받침 'ㄹ'이 탈락되기에 ㉠은 충족된다. 그러나 이후 남은 'ㅂ'은 이미 <보기>의 표준발음법 제 8항에 있는 자음이다. 따라서 'ㅂ'이 'ㅁ'로 교체된 것은 ㉠를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꼼꼼했어야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어려운 거 인정이다.

< 임권의T의 TIP >

국어사를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 좋겠다. 평가원은 여러분에게 '이거 알아?'라고 물어보지 않는다. 그건 공무원 시험이다. 여러분이 해야할 일은 최대한 현대어와 중세/근대어를 번갈아가며 보며 그 차이에 대해 논하는 '선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구태어 이상한 지식을 갖다 붙이지 않으면 좋겠다.

[ 국 어 사 ]

[47~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 영수는 서울에서/서울에 산다.
- (2) 민수는 방에서/\*방에 공부하고 있다.
- (3) 학교에서 체육 대회를 열었다.

(1)에서는 '에'와 '에서'를 다 쓸 수 있는데, 왜 (2)에서는 '에서'를 쓰고 '에'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에서'를 주격 조사로 쓸 수 있을까?

'에'와 '에서'는 모두 '장소'를 의미하는 말에 붙지만, (1)에서 '서울'은 '에'가 붙어 위치를 나타내는 [지점]의 의미가 되고, '에서'가 붙어 행위를 하거나 일이 발생하는 [공간]의 의미가 된다. 즉, 똑같은 장소라도 지점으로 인식되면 '에'를 쓰고, 공간으로 인식되면 '에서'를 쓴다. (2)에서 '방에'를 쓸 수 없는 이유는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장소인 '방'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에'와 '에서'의 쓰임이 구분되는 것은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의 형성 과정에 기인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에/에, 인/의'와 '이시다(현대 국어 '있다')의 활용형인 '이셔'가 결합된 말들이 줄어서 '에서/에서/에서, 인서/의서'가 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본래 '이시다'를 포함하므로, 그 의미상 어떤 공간 속에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에서/에서/에서, 인서/의서' 앞의 명사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이 새로운 형태가 쓰일 자리에 '에/에/에, 인/의'가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에/에/에, 인/의'가 현대 국어의 '에'와 '에서'의 쓰임을 모두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에서/에서/에서, 인서/의서' 앞의 명사가 어떤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면, 그 공간이나 집단 속에 있는 구성원의 행위를 그 공간이나 집단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중세 국어에서 '에서/에서/에서, 인서/의서'가 주격 조사로도 쓰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현대 국어의 '에서'로 이어지는데 (3)과 같은 예에서 그러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의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에는 '에서' 앞에 공간이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고 유정 명사는 올 수 없다. 부사격 조사 '에'에 '서'가 붙은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인 것처럼 부사격 조사 '께'에 '서'가 붙은 '께서'도 주격 조사로 쓰인다. '께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부사격 조사 '피셔' 역시 '피'

와 '셔'가 결합하여 형성되었는데, 근대 국어를 거치면서 주격 조사로 변화하여 현대 국어의 '께서'로 이어졌다. 중세 국어의 '에서', 현대 국어의 '에서'와 달리 중세 국어의 '피셔', 현대 국어의 '께서'는 높임의 유정 명사 뒤에 나타난다.

4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2020학년도 9월 11번, 정답률 70%]

- ① 중세 국어에서 '에' 앞의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 ② 현대 국어에서 '에' 앞에 붙을 수 있는 명사는 '에서' 앞에 붙을 수 없다.
- ③ 중세 국어의 '애/에/예'는 '의/의'와 달리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다.
- ④ 현대 국어 '에서'의 중세 국어 형태인 '에서'에서 '셔'는 지점의 의미를 나타냈다.
- ⑤ 중세 국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에서' 앞에 유정 명사가 오기 때문이다.

4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학년도 9월 12번, 정답률 47%]

— < 보 기 > —

<b>현대 국어의 예</b>
㉠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 정부에서 홍수 대책안을 발표하였다. ㉢ 할머니께서 저녁 늦게 식사를 하셨다.
<b>중세 국어의 예</b>
㉣ 一物이라도 그위에서 다 아소물 슬노라 (물건 하나라도 관청에서 다 빼앗음을 슬퍼하노라.) ㉤ 부터피셔 十二部經이 나시고 (부처님으로부터 12부의 경전이 나오오)

- ① ㉠: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② ㉡: 집단을 의미하는 '정부'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③ ㉢: 높임의 유정 명사인 '할머니'에 주격 조사 '께서'가 붙었군.
- ④ ㉣: '그위에서'는 '그위'에 주격 조사 '에서'가 붙었군.
- ⑤ ㉤: 높임의 유정 명사인 '부터'에 부사격 조사 '피셔'가 붙었군.

49.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18학년도 6월 15번, 정답률 66%]

— < 보 기 1 > —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다.

- 상네 쓰는 힘 일후미라(일홈+이라) (보통 쓰는 힘의 이름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牛頭는 쇠 머리라(머리+라)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 生佛은 사라 거신 부테시니라(부터+ㅣ 시니라) (생불은 살아 계신 부처이다)

— < 보 기 2 > —

- 齒는 ㉠ (치는 이이다)
- 所는 ㉡ (소는 바이다)
- 樓는 ㉢ (누는 다락이다)

	㉠	㉡	㉢
①	니이라	바이라	다락라
②	니라	배라	다락 라
③	니이라	바라	다락 라
④	니라	배라	다라기라
⑤	니 라	바이라	다라기라

50.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8학년도 9월 14번, 정답률 63%]

<보기 1>

- ㉠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 ㉡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 ㉢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 ㉣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보기 2>

- ㉠ **므슴 마를 니르느뇨** [무슨 말을 말하느냐?]
- ㉡ **저므며 늘구미 잇느녀** [짧으며 늙음이 있느냐?]
- ㉢ **虛空과 벼를 보더시니** [허공과 벼를 보시더니]
- ㉣ **世尊하 내 堂中에 이셔 몬져 如來 보습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

- ① ㉠의 '니르느뇨'와 ㉡의 '잇느녀'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의 '마를'과 ㉢의 '벼를'을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의 '世尊하'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의 '보더시니'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의 '보습고'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51.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2020학년도 6월 13번, 정답률 63%]

<보기>

중세 국어에서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종결 어미나 보조사가 달리 쓰인다. 예를 들면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녀', 설명 의문문에서는 종결 어미 '-뇨'가 쓰인다. 반면,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하여 서술어가 될 때 판정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가', 설명 의문문에서는 보조사 '고'가 쓰인다. 그런데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 의문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결 어미 '-나다'가 쓰인다. 중세 국어 의문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이 일후미 ( ㉠ )  
[이 이름이 무엇인가?]
- 네 엇데 아니 ( ㉡ )  
[네가 어찌 안 가는가?]
- 그되는 보디 ( ㉢ )  
[그대는 보지 않는가?]

- |   |     |     |       |
|---|-----|-----|-------|
|   | ㉠   | ㉡   | ㉢     |
| ① | 므스고 | 가느뇨 | 아니흐는다 |
| ② | 므스고 | 가는다 | 아니흐는다 |
| ③ | 므스고 | 가느뇨 | 아니흐느녀 |
| ④ | 므스가 | 가는다 | 아니흐는다 |
| ⑤ | 므스가 | 가느뇨 | 아니흐느녀 |

[52~53]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A: '(같이) 줍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줍다'는 '줍고', '줍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B: 그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짓다'는 '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A: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줍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줍다'는 '줍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줍-'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와'처럼 어간이 '둑-'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짓고'처럼 어간이 '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절-'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ㅅ'이 'ㅆ'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와'와 '저서'는 '빙'과 'ㅅ'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ㅅ'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박>도와', '더벼>더위'에서와 같이 'ㅂ' 또는 'ㄷ' 앞에서는 반모음 'ㅃ/ㅆ[w]'로 바뀌었고, '도박시니>도오시니', '셔볼>셔울'에서와 같이 'ㅆ' 또는 'ㄷ'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ㄱ' 또는 'ㄷ'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ㅅ'은 16세기 중엽에 '아수>아우', '저서>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ㅆ'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셔울', '도오시니', '아우'는 18~19세기를 거쳐 '셔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A: 자료를 보니 '빙', 'ㅅ'이 사라지면서 '도박'이 '도와'로, '저서'가 '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B: 그럼 '(고기)를 줍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A: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줍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5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6월 11번, 정답률 61%]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느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박'이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짓고'와 현대 국어의 '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53.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2017학년도 6월 12번, 정답률 44%]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 /-은	-게	-아/-어	-은 /-은
① (마음을) 줍다	줍게	고박	고뵐	줍게	고와	고온
② (신을) 벗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를) 짓다	늑게	누벼	누본	늑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박	자뵐	잡게	자바	자뵐

[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

국어의 단어들은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

5) [단어] 20번과 중복 지문

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A]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람고(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 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54.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8학년도 수능 12번, 정답률 56%]

— < 보 기 —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 (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이 누고 (네 스승이 누구인가?)
- 느른 누구 (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 (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훈 벗은 누고고 (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55.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학년도 9월 15번, 정답률 49%]

— < 보 기 —

(가) 하늘 버리 눈 곧 다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왕이 부터를 講호스북쇼서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머니물 아라보리로소니잇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라) 내 이틀 위하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내가 이틀 위해서)

(마) 그 물 미트 숯물에 잇느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① (가):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시'가 쓰였다.
- ② (나):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술'이 쓰였다.
- ③ (다): 관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 ④ (라):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 ⑤ (마):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6)

국어사적 사실이 현대 국어의 일관되지 않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르'로 끝나는 명사 '발', '술', '이틀'이 ㉠'발가락', ㉡'소나무', ㉢'이튿날'과 같은 합성어들에서는 받침 '르'의 모습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어의 옛 모습을 알아야 한다.

'소나무'에서는 '발가락'에서와는 달리 받침 '르'이 탈락하였고, '이튿날'에서는 받침이 '르'이 아닌 'ㄷ'이다. 모두 'ㄷ' 받침의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인데 왜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현대 국어에는 받침 '르'이 'ㄷ'으로 바뀌거나,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르'이 탈락하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대 국어의 규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발가락'은 중세 국어에서 대부분 '발' 가락으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 'ㄷ'은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으므로 '발' 가락은 구로 파악된다. 이는 '발' 엄지 가락(엄지발가락)과 같은 예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이후 'ㄷ'은 점차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고 합성어 내부의 사이시옷으로만 흔적이 남았는데, 이에 따라 중세 국어 '발 가락'은 현대 국어 '발가락(발까락)'이 되었다.

— '소나무'는 중세 국어에서 명사 '술'에 '나무'의 옛말인 '나'가 결합하고 '르'가 탈락한 합성어 '소나무'로 나타난다.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와 달리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 'ㄴ, ㄷ, ㅅ, ㅈ' 등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받침 '르'가 탈락하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술'의 '르'가 탈락하였다.

6) [음운] 7번과 중복 지문

‘이튿날’은 중세 국어에서 자립 명사 ‘이튿’과 ‘날’ 사이에 관형격 조사 ‘시’ 결합한 ‘이튿 날’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시’은 ‘이튿 밤’, ‘이튿 길’에서의 ‘시’와 같은 것이다. 중세 국어에서 ‘이튿 날’은 ‘이튿 날’로도 나타났는데, 근대 국어로 오면서는 ‘리’이 탈락한 합성어 ‘이튿날’로 굳어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시’이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잃어 가고, 받침 ‘시’와 ‘ㄷ’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튿날’의 표기와 관련하여 “끝 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튿날’로 적도록 했다. 그러나 이때의 ‘ㄷ’은 ‘리’이 변한 것으로 설명되지 않으므로 중세 국어 ‘뭇 사람’에서 온 ‘뭇사람’에서처럼 ‘시’으로 적는 것이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56.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9학년도 수능 13번, 정답률 49%]

< 보 기 >

**[탐구 주제]**

○ ‘순가락’은 ‘젓가락’과 달리 왜 첫 글자의 받침이 ‘ㄷ’일까?

**[자료]**

중세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 자비며 저 놓느니 (순가락 잡으며 젓가락 놓으니)</li> <li>• 숲 근 (순가락의 끝, 젓 가락 근 (젓가락 끝), 수저 (수저))</li> <li>• 물 (무리), 뭇 사람 (뭇사람, 여러 사람)</li> </ul>	
근대 국어의 예	현대 국어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가락 장스 (순가락 장사)</li> <li>• 뭇사람 (뭇사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로 밥을 뜨다</li> <li>• 순가락으로 밥을 뜨다</li> <li>• 밥 한 술</li> </ul>

※ ‘\*’는 문법에 맞지 않음을 나타냄.

- ① 중세 국어 ‘술’과 ‘저’는 중세 국어 ‘이튿’처럼 자립 명사라는 점에서 현대 국어 ‘술’과는 차이가 있군.
- ② 중세 국어 ‘술’과 ‘저’의 결합에서 ‘리’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 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 ③ 중세 국어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 국어 ‘이튿’이나 ‘뭇’과 같이 모두 관형격 조사 ‘시’이 결합할 수 있었군.
- ④ 근대 국어 ‘순가락’이 현대 국어에 와서 ‘순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의 경우와 같군.
- ⑤ 현대 국어 ‘순가락’과 ‘뭇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 국어 ‘숲’과 ‘뭇’이 현대 국어로 오면서 ‘리’이 탈락한 후 남은 ‘시’의 발음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군.

57.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017학년도 수능 13번, 정답률 29%]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믰스믈 <u>여러</u>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어</u>
㉡	[중세 국어] 自然히 믰스미 <u>여러</u>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을 <u>열리어</u>
㉢	[중세 국어] 번개 구름을 <u>흐터</u>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홀어</u>
㉣	[중세 국어] 散心은 <u>흐튼</u> 믰스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u>홀어질</u> 마음이다.

탐구 결과: ㉠와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이 자료의 저작권은 임권의T(히파27)에게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무료 배부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로, 2차 저작물에 활용/배포 등의 활동을 금지합니다.

평가원 문법 고난도 문제 모음(14학년도~21학년도)

국어 영역 정답표  
( 홀수 ) 형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1	③	11	④	21	①	31	⑤	41	②	51	②
2	①	12	⑤	22	②	32	②	42	①	52	②
3	②	13	③	23	②	33	②	43	⑤	53	①
4	④	14	①	24	③	34	④	44	②	54	①
5	④	15	③	25	⑤	35	③	45	①	55	⑤
6	③	16	①	26	②	36	④	46	⑤	56	⑤
7	②	17	④	27	⑤	37	⑤	47	①	57	③
8	③	18	⑤	28	①	38	①	48	①		
9	①	19	③	29	⑤	39	③	49	④		
10	③	20	④	30	②	40	②	50	⑤		